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35
----------	------

2021년 11월 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8. 27. 유용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 나. 회부일자 : 2021. 8. 31
-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1년 11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2021년 5월 4일 구성함.
- 당초 동 특별위원회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가 2020년 도쿄 올림픽 (2021년 7월 23일~8월 8일) 개최 전·후로 선정될 것을 대비하여 급변하는 남북관계 정세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와 체육, 교통, 미디어, 의료,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음. 그러나 경쟁도시였

던 호주 브리즈번이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차기 올림픽인 2036년으로 목표를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 ·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의 개요

- 서울시의회는 2018년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호주 브리즈번이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차기 올림픽인 2036년 개최지 선정을 목표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타당성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을 2032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될 것을 대비해 급변하는 남북관계 정세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와 체육, 교통, 미디어, 의료, 안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 (활동기간 : 2021. 5. 24 ~ 2021. 11. 3)되었음.
-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1년 7월 2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본 도쿄에서 제138차 총회를 열고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을 선정하였음.¹⁾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53500007>, 연합뉴스(“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브리즈번 확정…호주서 3번째”), 2021. 7. 21.

- 이에 현재 명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으로는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 바, 차기 올림픽인 2036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명칭이 구성 목적과 활동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2032 올림픽 호주 브리즈번 개최 확정('21. 7. 21)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중 문체부·통일부·외교부·대한체육회 등 관계 부처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여부 및 북한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정립할 계획 중에 있어²⁾,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 또한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달리 존속기간이 일시적이고 한시적 성격인 점을 고려했을 때³⁾, 2036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지원이라는 유동적이고 장기적 목적을 특별위원회를 통해 달성하기에는 효과성 및 연속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는 문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제30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자료, 2021.9.

3) 국회법 해설, 국회사무처, 2016.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유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3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27일

발 의 자 : 유용, 권수정, 김경우,
김평남, 이성배,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전병주,
정진철 의원(10명)

1. 주문

- 2021년 5월 4일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2021년 5월 4일 구성함.
- 당초 동 특별위원회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가 2020년 도쿄 올림픽(2021년 7월 23일~8월 8일) 개최 전·후로 선정될 것을 대비하여 급변하는 남북관계 정세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체육, 교통, 미디어, 의료,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음. 그러나 경쟁도시였던 호주 브리즈번이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차기 올림픽인 2036년으로 목표를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 ·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한다

주문 중 2021년 5월 4일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